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맡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지

(10월1일 주일설교/빌레몬서1:23-25/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갖는 행복)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4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의 팀원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네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도 아리스다고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첫 열심, 첫 믿음,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4: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주님을, 교회를, 신앙적인 것을 우선으로 놓는 사람들입니다. 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인기가 있다’입니다. 데마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기에 친구들 사이에 그의 인기는 여전했고,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한 그는 결국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마가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데마는 처음에 비해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이 좋았으면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도 세상보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동역자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모에 가시’라고 불렀던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관원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그의 건강을 살피고 돌보아 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골4:14 참조)

또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고후8:18)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도합 52장이나 되는 성경을 썼다는 것을 보면 그는 나중되었는데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시종일관한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4:10-11절에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스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누가는 비록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세계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 있는 아름다운 편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와 약점 투성이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놓고 보면 불품없는 조각천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멋진 이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역시 좋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약점들은 다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벽돌이 서로 쌓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자랑스런 팀원들같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 가운데 목원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경우를 말해보세요. 빌레몬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만난 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or 해야 하는 것들)을 나눠 보세요.



목회자 칼럼

싱글목장 목원들과 그 부모님들께.

부교역자로 행복한교회를 섬길 때 제가 장년교구와 맡은 부서는 청년부였습니다. 2012년 12월 서울의 목회지로 떠날 때 청년들이 그동안 추억들을 찾아서 만들어 준 사진 앨범은 여전히 저의 보물 상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지를 옮기며 헤어지다보니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뜬금없이 휴대폰에 어느 청년의 이름이 뜨면 심중팔구 결혼한다는 전화입니다. 하하^^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을 못 꺼내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는구나?”라고 물어보시면 그제서야 “목사님, 한번 찾아봐어도 될까요?”라고 말합니다. 서울 사역 초기에는 어떻게든 결혼식이 있으면 대전에 내려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주일 4부예배 시간에 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내용 중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이미 결혼을 하신 장년들을 염두에 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부에는 주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살짝 잊고서 설교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라는 쪽으로 수정해서 말하면 간단한 것이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는지 원고에 없는 말은 잘 못하는 저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한 말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막으로 이런 말을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형제와 결혼하세요! 예수를 잘 믿는 자매와 결혼하세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뉴스를 보니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가 다양하지만, 청년들은 친척들을 만나면 듣게 되는 취업, 결혼의 문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싱글목장 목원들과 그 부모님들이 “결혼이란, 외적인 모습에 끌려서(창6:2)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공유하는 남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원리와 말씀을 붙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목사-

☎34068대전시 유성구 반석로11번길90-23(반석동661)
☎(042)826-9191~4, FAX(042)822-0691
<http://www.inhappy.org>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일일특세 & 공동체금식

추석 연휴관계로 9월 일일특세는 다음 주 월요일(9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명절연휴 새벽기도 안내

새벽기도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월~화 차량운행은 없겠습니다.

3. 위드 VIPS 목장연합 가을 운동회

1)일시: 10월 21일(토) 오전10시

2)장소: 세종 연동중학교(세종 내판로 10-13)

3)신청: 좀더 짜임새있는 진행을 위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목자님들을 통해 신청하시고, 자녀들까지 참석 인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월 8일까지)

4)VIP들도 초대해서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4. 삶공부

1)오늘과 화요일 생명의 삶은 휴강합니다.

2)목요일 새로운 삶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오후8시)

5. 총목자모임

10월 총목자모임이 토요일(7일) 오후 5:30분에 있습니다.

6. 20기 새가족반

20기 새가족반 첫 모임이 7일(토) 오후 2시, 본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7. <말씀보화찾기> 성경 통독 36주차

1)골로새서 3장 ~ 히브리서 6장까지 2)말씀수첩 구입은 1층 교역자실에서.

8. 성경대로 [새번역성경 통독]

태국민나목장의 정한숙권사님이 직접 제작하신 보고 듣는 성경입니다. 많이 사용하셔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검색창에: 성경대로 새번역성경통독)

9. 담임목사 목장탐방

이번 주는(금요일) 대명목장(이동수목자) 탐방이 있습니다.

10.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

6일(금)~8일(주일) 양주 열린교회에서 열립니다. 박희락목사님, 김미선사모님 참여하니 잘 배우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1.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하반기 일정표를(1,2층 게시판에도 붙어 있음) 참고하셔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교우동정

1)목장선택: 유미경집사, 몽골목장(이숙현목자)으로.

2)결혼: 장재영·김명진 결혼예배/ 10월9일(월) 오후12시,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홀

성구암송

빌레몬서 1:7(새번역)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